2018 년 4 월 21 일 "(부활절) 경외심과 큰 기쁨"(마 28:1-10)

<도입>

기독교를 형성하는 기본 주제들, 창조,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초 위에 어떤 삶을 세워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사람이 마스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옳은 방향과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부활과 동반된 사건

(1) 천사의 등장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같은 복음의 중심적 사건들은 사람의 이성적 이해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천사의 등장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신비적 차원까지 시사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주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2 절**,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옮기는 천사의 활동은 예수님 부활을 암시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삶으로부터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현재적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돌이 있습니다. 분주함, 염려, 불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무덤 앞의 돌만큼 내 힘으로는 치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로 옮겨진다면 지금 여기서 나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경비병들의 두려움

4 절. 무덤 지키는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경비병들은 예수님 무덤에서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꼼짝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일이 영혼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과거와 자신의 자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내면에 묻힌 상태에 머물도록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의 세상 권세로 지키기 때문에 위력 있어 보여서 나는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를 보자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원래 무력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경비병들이 쓰러지면 거기서 무력한 자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위의 낯선 광경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때 천사가 말합니다.
5 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하고 큰 일에 부딪힐 때 사람 안에 있는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말씀을 듣고 극복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다른 차원의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경이와 놀람이 섞인 감정입니다.

[2]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그래서 여인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한 말을 똑같이 주시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 하시며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그 곳은 제자들이 성장하고 먹고 사는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다시 만나주시면 생계의 터전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갈릴리만 이 현격한 삶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장소에서 새 출발을 한다면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건지, 단지 새 장소에서 새 출발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려면 성품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면서도 무의미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통치에만 복종하며 또한 사랑의 사람들로 살고 죽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의 동력은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을 본 것과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내면에 일어난 경외심과 큰 기쁨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도약은 이와 같이 무엇이 진정한 두려움이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자각하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 그분을 사랑함으로 피어나는 가슴의 일입니다.

이제 성찬을 대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 있는지, 또 나의 삶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찾고 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과정을 본문 속에서 꼼꼼히 살피면서 나를 대입하여 묵상해 보세요.
2. 예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돌과 지키는 자들은 부활 생명 앞에 무력했습니다. 내가 얻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복해야 할 돌과 지키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 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